소아·청소년정신의학 제 3 권 제 1 호 1992
Korean J Child & Adol Psychiatr 3 : 138~146

선택적 함구증을 보인 6세아동의 놀이치료

THE PROCESS OF PLAYTHERAPY OF A CHILD WITH ELECTIVE MUTISM

곽 영 숙*

Young-Sook Kwak, M.D.*

요 약 : 선택적 함구증을 보인 6세 아동의 놀이치료 과정을 통해 나타난 정신역동 및 치료과정을 발달학적 관점에서 소개하였다. 비지시적 지지적 놀이치료를 실시하였고 치료자와의 관계속에서 환아는 놀이를 통하여 단계적으로 발달과정을 재경험하여 분리 불안 및 유기공포를 극복하고 자율성을 회복하므로써 증상의 소실과 함께 정상적 외디푸스시기의 발달을 이루게 되었다.

중심 단어 : 선택적 함구증·놀이치료.

서 론

놀이의 임상적인 유용성에 대하여는 널리 알려져 있고 놀이를 통한 정신치료에 관해서도 여러가지 이론적 모델의 적용과 실제치료 경험이 꾸준히 제시되어 왔다. 특히 A.Freud(1965)가 발달학적 접근을 강조한 이래 Carek(1972)은 발달학적 구조를 포함한 총괄적인 모델을 제시한 바 있으며 최근에 아동의 정신치료에 있어서의 발달학적 모델을 보다 체계적으로 기술하고 이를 적용한 증례 소개가 보고되었다(Hong 1980). 임상 증례를 통해 알려진 이론적 모델을 재평가하고 정립하는 일은 계속되어져야 할 의미있는 일이라 하겠다.

본 논문은 선택적 함구증을 보인 6세 아동의 놀이치료 과정을 소개하였으며 이 과정을 통해 나타난 정신병리 및 정신역동, 치료과정을 발달학적 관점에서 이해해 보려 하였다.

대상 및 방법

서울대학병원 소아정신과 외래를 방문하여 선택적 함구증의 진단적 인상하에 놀이치료를 권고받은 6세 여아를 대상으로 1985년 11월부터 놀이치료를 주 1회 시작하여 1986년 5월까지 정기적으로 실시하였고 1986년 11월까지 추적 치료를 서울대학병원을 거쳐 국립정신병원에서 계속하여 그 치료기록과 환아의 어머니, 유치원 선생님과의 면담기록을 바탕으로 하여 증례를 요약 정리하여 소개하였고 그 치료과정을 분석 고찰하였다.

증 례

만 5년11개월된 여아로 '유치원에만 가면 입을 다문다'는 것을 주소로 내원하였다. 환아는 만 3세부터 유아원에 다녔는데 떨어지기 힘들어 해서

*국립서울정신병원 소아정신과 *Department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Seoul National Mental Hospital*

어머니가 한달을 교실에 같이 있어야 했다. 이당시 유아원 선생님이 엄했고 '창문에 던진다'는 위협적인 말을 한적이 있다 하며 환아는 유아원을 싫어하지는 않았으나 계속 울었고 말을 하지 않았다. 6개월만에 이사해서 그만두었고 이듬해 새 유아원에 갔으나 선생님에게 인사도 못하고 적응을 잘 못하다 다시 이사하느라 한학기만에 그만두고 피아노학원에 다녔으나 말은 하지 않았다. 이당시 주위에서 자폐라고 단정짓는 사람이 있어 어머니가 충격을 받았고 다시 이듬해 새 학기가 시작되고 나서 두달이 지난 후 새 유치원의 빈 자리에 입학하게 되었다. 반응이 없고 단체활동을 따라하지 못하는 등 한달 반이 지나도록 진전이 없어 선생님이 일대일로 접촉을 시도한 후 고개로 반응하는 정도로 변화는 보였으나 입을 열지는 않았다. 2개월이 지난후부터 아이들이 없는 상황에서는 '예, 응'등 간단한 대답을 하기 시작했고 여름방학동안 일주일에 한번씩 선생님과 책읽기, 노래하기를 계속한 뒤 2학기부터는 단체활동을 따라하기 시작했으나 아이들과는 말을 하지 않아 '귀 먹고 말 못하는 아이'로 알려졌고 아이들이 때려도 가만히 있었다. 생일날 같은 반 아이들을 초대하여 같이 놀면서 의사소통을 했으나 유치원에 가서는 다시 말을 안했다. 선생님과는 개인적 놀이 시간을 갖기 시작한 후 내원하기 일주일전부터 말을 트기 시작했으나 선생님과 얘기하다가도 친구가 오면 입 다물어 버린다 했다.

환아는 정상분만으로 태어나 분만당시 몸무게가 3.15kg였고 3개월간 모유를 먹다 설사 때문에 우유로 바꿨다. 백일 되면서 아버지가 중동으로 출국하여 부산의 본가로 들어가 살게 되면서 밤에 깨어서 밤새 두발 구르면서 우는 일이 많았다. 이때부터는 할머니가 도맡아 키웠는데 아주 이뻐했고 위했다. 만 두돐에 아버지가 귀국하여 분가하여 서울로 이사했고 여동생도 태어났는데 이때부터 가렸던 오줌을 싸기 시작했고 발달은 느리지 않았는데 떼 많이 부리고 동생을 밀치고 해롭게 하며 던지고 부수고 하여 어머니가 야단을 많이 쳤다. 한편으론 어머니가 안심이 안되 남에게 못 맡기고 놀이터에도 혼자 못가게 했다. 길 지나가는 사람, 모르는 사람에게는 말을 잘 하는데 사람들이 주시할 때 못하고 아는 가게에서도 물건살 때 말을 못한다.

환아의 아버지는 건설회사 소장이며 6남매의 맏아들로 동생들을 공부시켰고 성격은 거친편이며 잘못된 것을 못 넘긴다. 가족에게는 무심하고 수석, 수족관, 독서가 취미이며, 애들이 울면 참질 못하여 운전하고 가다 애가 울면 신경질을 부리고 "부딪치고 싶어진다"고 차를 세울 정도다.

환아의 어머니는 내성적이고 깔끔한 성격으로 대학병원 간호원으로 근무하다 중매로 환아 아버지를 만났으며 노총각에 맏아들이라 싫었으나 남자쪽에서 서두는 바람에 결혼하고 말았다. 결혼후 3년간 환아 낳고 남편도 없이 시집살이 하느라 힘들었다. 환아의 조모는 혼자 벌어 6남매 대학공부를 시킨 생활력이 강하고 자부심이 강한 분으로 고향이 틀리다고 결혼 반대하였으며 환아 키울 때 환아 어머니가 손도대지 못하게 하였다. 환아 어머니는 시어머니가 담배 많이 피우고 화장실 갔다와서 손도 안씻고 끓여놓은 젖병을 만져 싫고 불안했다. 딸만 둘을 낳은 것에 대해 공개적인 불만은 없었으나 조모는 아들을 바랬었다. 유치원 선생님의 가정방문 소견에 의하면 환아가 자신의 방에 가지 않으려 해서 가보니 삭막하고 벽에는 "엄마가 ××에게 부탁하는 말"이 걸려 있고 어머니 방에는 어머니 자신이 지켜야할 문귀가 적혀 있었다. 환아 문제를 모유 먹이지 않고 우유 먹여서 그렇다는 등 환아 어머니의 탓으로 돌려 환아 어머니는 궁지에 몰려 있는 상태였고 환아는 아버지를 두려워 했는데 3세경 자주 깨고 울고 토할 때 환아 아버지가 '조상이 죄를 지어서 귀신든 병이다'고 하며 애를 죽인다 해서 어머니가 애를 업고 도망한 적이 있으며 '너 그렇게 말하기 싫으면 입 다물고 다니라'고 야구방망이를 환아 입에 넣었다가 환아 어머니 얼굴에 던진 적도 있다. 또 아버지 참관수업 때 환아가 굳어지자 집에 와서 '당장 유치원 그만두라'고도 했다.

초진당시 환아는 놀란 토끼 같이 긴장해 있었으며 묻는 말에 대답은 했으나 점차 더 긴장하였고 회피적이었다. 잠깐 혼자 블럭 놀이를 했는데 내용은 "아빠가 왜 몰래 빠져나갔느냐, 농부아저씨는 따로 사는 거야, 아빠는 바빠서"등이었다. 이후 면담에서 환아는 어른이 되면 '간호원이나 엄마'가 되고 싶고 좋아하는 사람은 아빠이고 무서운 동물은 잡아먹는 호랑이이며 좋아하는 동물은 곰인데 물기 때문이

라했고 토끼가 되고 싶다 했다. 세가지 소원은 한 가지만 얘기했는데 "나쁜 도둑 때려 주세요"였고 친구에 대한 물음에는 고개를 저었다. 말은 빨랐으나 뚜렷한 구음장애는 없었다. 놀이방에서 어머니와는 쉽게 헤어졌다.

치료과정

놀이치료 과정중에 나타난 특징과 놀이 내용의 변화에 따라 다음과 같이 몇 단계로 나눌 수 있다. 주된 놀이 내용, 치료자와의 관계, 어머니가 말하는 현실생활에서의 변화와 부모 태도의 변화등 크게 세가지 관점에서 치료과정을 요약 정리하였다. 치료자는 전반적으로 비지시적 지지적 태도를 취했으며 말하는것 보다는 긴장을 줄여 주도록 노력했다.

#1~#4 ; 초반기에 퍼즐, 보울링, 피아노, 나팔, 북치기등 기계적인 단순놀이를 한가지씩 숙달(mastering) 될 때까지 반복했고 집짓기도 했지만, 이야기를 만든다거나 하는 상징적 놀이로 전환시키지 못하였다. 눈을 잘 안맞추었으며 혼자하는 놀이를 통해 치료자와의 관계를 피하였다. 그러나 농구게임등 대화나 감정표현을 피할 수 있어 안전하면서 상호 관계는 가능한 놀이를 통해 점차 관계형성이 되었고 그러면서 환아는 보다 자발적 능동적이 되어 바둑알 따먹기를 치료자에게 가르쳐주고 의사놀이, 전화놀이를 잠깐씩 시도해 보기도 하고 헬리곱터로 난폭하게 운전시키고 충돌시키는 등 감정표현이 가능해졌다. 처음에는 치료자 눈치만 보다 강아지 흉내를 내며 관심을 끌기도 하고 "나 오늘 집에 안갈거야, 음악 소리가 좋아서"하며 치료시간에 친근감을 나타냈다. 한편 시간(time limit) 지키는 것을 힘들어 해서 늘 더 놀고 싶어하고 갈 때는 화가나서 피아노를 두들겼다.

#5~#10 ; 헬리곱터를 신나게 달리고 충돌시키는 등 보다 공격적 놀이 반복하고 농구게임을 점차 즐기며 재밌어 하고 승부에 집착, 이기면 "난 맨날 맨날 이겨" 좋아하였다. 가장 두드러진 것은 인형놀이가 시작된 것으로 그 내용은 크게 다음 세가지였다.

첫째, 세살, 네살인 '또돌이, 또숙이, 또순이' 가 헬리곱터 타고 부산에 가나 "할머니는 죽었어 너는 거기서 살아" 소리를 듣고 할머니 안경을 훔쳐오는데 배가 아프고 갑자기 스머프에 나오는 가가멜이 쫓아 온다. 또 주인공 또돌이가 버스타고 친구들과 강가에 놀러갔는데 갑자기 배가 아파 "괜히 따라왔나봐 ! 나 우리집에 갈래 설사를 해버렸어"등의 이야기에 나타난 주제로서 '길을 잃어버린 여섯살 남자아이가 먼데서 길을 찾아가는' 어두운 바탕칠의 그림으로 반복해서 표현되고 환아자신이 "할머니 보고싶어 죽겠네, 부산 살아요, 나를 새끼라고 해요. 애기 때 같이 살았어요"라고 말했듯 세살 때 조모와 헤어진 경험, 그 심리적 타격의 생생한 표현이었다.

둘째, 블럭으로 기차, 택시 만들어서 "등촌 아파트 가요"를 반복하였는데 "이사오기 전에 등촌 아파트에서 친구 많았어요"라는 환아의 말을 통해 나타나듯 과거 행복했던 시기에 대한 그리움을 알 수 있었다.

셋째, 불럭으로 사진기를 만들어 찍는 흉내를 내며 "아빠가 이렇게 했어요"하고 이어서 "부엉이들이 키스하고 뽀뽀했어요. 밤중에 부엉이들이 갑자기 떠나기 시작했어요"하더니 "사진기를 망치겠습니다"고 부셔버렸다. 아버지와 카메라, 부엉이가 연결되는 뜻을 지니면서 상반된 감정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주제는 그림에서도 계속되어 눈오는 날 스케이트를 타는 아홉살 오빠와 여자아이를 그렸는데 "눈오는 날 아빠하고 소꿉장난 갖고 눈 뿌렸어요". 아빠랑 눈싸움하고 싶어요. 나는 맨날 맨날 아빠 생각만 해요". 라고 환아가 덧 붙였다.

전체적으로 억압(inhibition)에서 벗어나면서 내면적인 것이 많이 표현된 시기였다. 치료자와의 관계에서는 '원숭이 흉내'를 내는등 웃기려 하고 "오늘 피곤해요. 차타고 한참 와서"하며 드러눕는 등 마음놓고 퇴행을 보인 시기였다. 치료자는 환아를 따라가며 환아가 표현한 내용을 좀더 전개시키기 위한 언급이나 질문외에는 치료자 위주의 지시는 하지 않으려 했다.

환아는 6회 이후부터 유치원에서 두, 세명 아이들과 말을 하기 시작했고 발표회에서 앞줄에서서 리듬체조를 하는 등 자신감도 늘었는데 자신이 원해 나간 미술학원에는 열흘다니다 "거기선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며 그만 두었다. 환아 어머니도 처음

으로 자신이 간호원이었다는 것을 고백하였으며 환아 아버지가 많이 달라져 아이들에게 얘기도 해주고 스케이트도 같이 타러가는 등 자상해졌으나 안스럽다고 환아를 데리고 잔다 하여 따로 자도록 권고하였다.

#11～#15 ; 농구게임, 바둑알 따먹기를 주로 했으며 전보다 더욱 승부에 집착하여 "꼭 이기고 말테야" 하며 반칙을 써 가면서 까지 이기려 하고 매우 경쟁적이었다. 그림과 인형놀이가 계속 전개되었고 내용도 풍부해졌다.

인형놀이에서는 간호원 인형을 보고 "눈이 무서워, 눈 감으면 예쁠텐데 숨 못쉬게 해야지 무서워서 죽여야 되요"하며 바닥에 팽개치고 다음과 같은 이야기의 인형놀이를 하였다. "큰 집에 거인, 나쁜 공주가 살아요. 작은 집은 감옥인데 공주가 훨훨 날아서 사람을 잡아다 가둬요. 애기도 잡아야지, 누굴 꺼내서 잡아 먹을까? 구어 먹어야겠다. 한 마리는 죽었어".

그림에서는 수영장이 등장하고 "수영장이라 다 옷을 벗고 하는 거야 맞죠?" 하며 여덟살 남자아이와 여자아이를 그리고 "애가 제일 좋아하는 것은 눈이 오는것"이라고 펄펄 내리는 눈을 그리고는 처음으로 아빠에게 보여주겠다고 그림을 가져왔다. 이후에도 노골적으로 빨개벗고 쥬부타고 수영하는 그림을 계속 그렸고 같은 수영장그림이나 '여덟살 영이가 밤이라 귀신 나타날까봐 빨리 집에 들어가려는데 별이 없어지고 햇님이 떠오르는 그림'을 그리고 "햇님이 둥 떠가지고 와 웃었어요. 기분이 좋아서 동생도 안 때리고 착해질거예요"로 끝을 맺었다.

치료자와는 얼굴을 지그시 바라보며 미소를 짓는 일이 많아졌고 치료자 흉내를 내고 병록지에 자기도 써보는 등 치료자와의 동일화를 눈에 띄게 알 수 있었다. 환아는 길도 혼자 건너고 친구도 집에 데려오고 조모가 다녀가면 "할머니가 불쌍해, 내가 보고 싶은데 없잖아"하며 눈물 흘리는등 자유롭게 감정을 표시하고 아버지의 초인종 소리가 나면 숨어서 찾으라 한다 했다. 어머니는 환아의 표정이 이제 살아 있다며 치료중단 뜻을 비쳤으나 환아 국민학교 입학 후까지 연기하기로 하였다.

14회에는 피아노를 갖고 가겠다 하여 치료자와의 설득에도 한참 실랑이를 벌였다. 15회에 와서는 놀이방에 들어오려 하지 않고 들어와서도 "여기 오고 싶지 않아요, 아무 놀이도 안할거에요" 하며 화가 나 있어 "네가 선생님에게서 선물 받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해 화가 났구나 그런데 장난감은 여기 있어야 해"등 환아가 거부(rejection) 당했다는 느낌을 갖지 않고 받아드리도록 애를 썼고 그러자 치료자 무릎위에 앉아 초코렛을 하나 주며 "나 똑똑하지요" 묻고 치료자가 시간이 30분 남은 것을 알려주자 "어머나 안되지"하며 놀이를 시작하였다.

#16～#20 ; 게임에서 처음으로 봐주기도 하고 져주고 일부러 점수도 주고 이기고 싶으면 귓속말로 "선생님이 지세요, 화내지 마세요"하고 타협도 하며 즐김. 그림에서는 계속 햇님이 등장하여 웃고 로켓발사하는 그림을 그리고 나서 남자아이는 없어지고 나비 잡는 여덟살 순이가 등장한 후 그림 그리려는 욕구가 줄었다. 대신 권총놀이를 시작하여 쌍권총을 쏘아댔고 "우리집 형 있어요. 여덟살인데 엄마에게 얘기하지 마세요, 형 있으면 나쁜 도둑발길로 차줘요"라는 꾸민 얘기를 하였다. 치료자에게는 공손해지고 자기 이름과 치료자 이름을 나란히 병록지에 적고 "미안해요 선생님 지난번 그림 안 갖고 와서"하며 사과도 하였다.

환아는 국민학교 입학하여 출석 부를 때 입이 안떨어지더니 곧 대답하기 시작해서 "대답해도 친구들이 하나도 안 쳐다보대"라 말하고 학교에서 친구 손잡고 온다 하였다. 어머니는 이제 동생에 대한 걱정을 하였고 "관두면 어떠냐?"고 물었다.

#21 ; 어머니가 여러 이유대며 오지 않았다. 한 달만에 방문.

깔깔 웃으며 게임 재미있게 하고 치료자에게 점수 주고 좋아함. '그림 그리고 싶다'고 하더니 온 가족이 웃는 얼굴로 강가에서 밥먹는 그림을 그렸다. 아빠는 여덟살이고 엄마는 열세살 자신은 치마 입고 리봉 달고, 햇님이 따뜻하게 비치고 있는데 외할머니만 가족에 끼여 넣었고 자신은 "할머니 생각하고 있어요"라고 설명하였다. 뒷장에 처음 '1학년 3반 9번'이라고 적었고 환아 어머니는 "동생때문에 야단 많이 쳤고 한편으로 놀이터에도 못나가게 과보호, 결벽증세로 키웠다"고 자신에 대해 솔직하게 되돌아보는 태도를 보였다.

추적치료

한달에 한번씩 4회의 추적치료를 실시하였는데 계속 게임을 즐겼고 가족인형으로 가족놀이를 활발히 하였다. 외할머니, 친할머니, 남자형제가 있는 대식구가 등장하여 크리스마스날의 즐거움을 보여주기도 하고 갑자기 불이 나서 기절하기도 했는데 의미있는 것은 가족놀이 시작되면서 계속 밤이 되어 자는 장면을 되풀이 한 점이다. 특히 부모가 한방에 자다 아버지만 딸들 방으로 살며시 오게한 후 다시 때리고 잡아먹고 감옥으로 데려가는 무시무시한 존재가 등장했다. 한편 가족놀이를 통해 환아가 어머니 역할 놀이를 시작했고 추적치료 동안 전학을 했는데 어머니가 걱정한 반면 환아는 '친구 사귀고 말할 자신이 있다'고 어머니를 설득했다. 이후 가족놀이에서도 잠자는 주제가 계속되어 아이들이 부모방으로 가고 부모는 다른 방으로 도망가서 자다 원래대로 부모방, 할머니방, 아이들 방으로 돌아가서 잘 잔후 온 가족이 모여 창밖의 눈 구경하는 것으로 끝났다. 환아는 처음으로 "엄마, 그렇게 웃을 때 참 예쁘다"고 엄마에게 칭찬을 했고 '치료시간에 엄마 혼자 기다리기 심심할테니 동생 데려오자'고 어머니에게 관심을 기우렸고 모녀사이의 다정함을 보여줬다. 환아 어머니도 '이제 자신이 생긴다' 하였다.

고 찰

Hayden(1980)은 선택적 함구증에 관한 연구에서 임상소견상 가장 흔한 집단이 공생적이며 반응적 함구증(Symbiotic and reactive mutism)이라 했는데 환아는 이에 적합한 것 같다. 즉, 지배적인 조모와 공생적 관계를 이루어 수줍고 매달리는 행동을 보이는 한편 거절적 태도로 상대방을 조종하는 공생적 함구증의 특징과 일련의 정신적 타격후에 함구증이 전체적 Withdrawal로서 온다는 반응적 함구증의 특징을 같이 갖고 있다.

놀이의 특성은 자발적, 능동적, 반복적이며 불안감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질 수 있고 재미가 있다는 점이다(홍강의 1984) 했는데 본 치료과정에서도 동일한 놀이와 동일한 놀이 주제가 환아의 Repetition compulsion에 의해 어느 시기까지 반복되는 것이 특징이었다. 또한 환아는 지난 시간의 놀이 내용을 놀랍도록 기억하고 있었고 나름대로 질서있는 흐름을 갖고 각 치료시간을 연결시키고 있었다. 또 매 시간마다 과거의 충격을 포함한 경험과 최근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 자신의 소망, Fantasy등을 고루 표현하여 놀이 내용 자체에 있는 그대로 정신역동이 드러나고 있었다.

놀이에 나타난 주된 정신역동은 다음과 같다. 제일 처음 인형놀이에 나타난 "할머니는 죽었어"로 표현된 할머니와의 이별경험이 정신역동의 주된 주제이다. 그러므로 또돌이의 나이가 이별 당시의 나이와 일치하는 것은 당연하다. '가가멜'과 길을 잃은 어두운 밤을 통해 분리에 대한 두려움이 강하게 나타나고 이러한 분리불안은 또돌이로 하여금 배가 아프게 만들고 친구들과 놀러가서도 설사를 해버리고 집으로 돌아오게 만든다. 또 계속되는 중요한 주제로서 주인공이 전부 남아로 표현된 점인데 환아가 남아가 되고 싶은 소망이 강한 것을 말해주고 이는 '남자였으면 버림받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환아의 무의식의 Fantasy를 말해 준다. 실제 공공연히 딸 둘인 것에 대한 불만은 없었지만 아들에 대한 가족의 무의식적 소망을 환아가 대변하여 환아가 이 다음에 크며는 '×서방이 되겠다. 아빠가 되겠다'고 한 말이 뒷받침을 한다.

또한 눈이 무서운 간호원 인형과 사람 잡아먹는 나쁜 공주귀신등으로 투사된 Oral incorporative bad mother image를 표현하므로써 놀이에서는 동일화하여 그 불안을 극복하려는 의도가 엿보였다. 이 부정적 어머니상은 분리개별화가 이루어지는 18~36개월 사이에 아동이 어머니를 전체로서 인식하지 못한 채 어머니에 대한 좋은 혹은 나쁜 감정을 전적으로 분리된 상태로 지각하는 결과(Kernberg, 1975)로 생기는데 환아는 이 시기에 분리를 경험하므로써 발달이 정체되어 버림받거나 잡아 먹는 것에 대한 공포가 계속되고 거기다 서울로 분가한 뒤 강박적이고 처벌적인 어머니와 안정된 애착을 형성 못하였다. 여기서 환아가 버림을 받느냐, 안받느냐, 누구에게 완전히 받아드려지냐, 안받아드려지냐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 수 있고 말을 하느냐 안하느냐는 곧 받아드려지냐 아니냐를 뜻하므로 환아가 낯선 사람이나 아주 친한 사람에게는

말하지만 어중간한 사람에게 말을 못하는 점을 이해할 수 있겠다.

초진시 '아빠가 왜 몰래 빠져나갔느냐'라고 한 환아의 말에 가족역동이 함축되어 있다. 강한 시어머니에 기를 못펴고 사는 환아 어머니는 아들까지 못낳아서 더욱 눌려지내는데 이에 무심한 남편에 대한 분노가 환아를 통해 표현된다고 하겠다. 인정못받고 눌려 지내는, 수동적 어머니를 닮았으면서도 아버지와 동일화하고 싶어하는 양가적 태도속에는 환아가 아들이었다면 환아 자신뿐 아니라 어머니까지 기를 펴고 살 수 있었을지 모른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아버지에 대한 태도도 양면적인데 외디푸스적 소망이 '사진기, 부엉이, 눈'을 통해 나타나면서도 '사진기를 망치겠습니다'에서 보듯 그러기를 바라면서도 강하게 부정하는 측면이 있다. 이는 외디푸스적 주제가 표현되면 반드시 앞에 언급한 부정적 어머니상에 잡혀 먹히는 주제가 따라오는 것을 미루어 보아 외디푸스적 소망에 따르는 두려움, 즉 그 소망은 모녀 관계를 위협하는 것으로 어머니에게 버림받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불러 일으키기 때문이라 하겠다. 전체적 치료과정의 흐름을 시간순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치료초기에는 주로 만지고 두들기고 맞추는 감각운동 놀이 위주였고 놀이기구, 놀이방, 치료자를 포함한 놀이시간 전체 분위기에 대한 탐험의 시기로 방어적이고 억압되어 있었다. 퍼즐을 다 맞출때까지, 나팔을 제대로 불때 까지 기다려 주므로써 Mastering을 통해 자신감을 느끼고 치료자에 대해서도 안심하게 되면서 학자에 따라 긍정적 전이(Freud 1965), 기본적 신뢰(Erickson 1963), 애착(Bowlby 1969)이라고 불려지는 의미있는 긍정적 관계수립이 이루어져 앞으로 문제해결에 필요한 안전한 기지가 마련되어졌다고 보겠다.

그러므로 다음 두번째 단계에서 달리고 부딪치는 공격적 놀이와 게임의 승부에 집착하는 등 자기주장과 자율성이 증가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그러는 한편 드러누워 손을 잡아달라는 등 수동적 태도를 보이며 치료자에 대한 믿음과 자신의 독립심을 계속 시험하였다. 이 시기의 적합한 치료는 일관성 있는 적절한, 지지를 겸한 Limit setting이라(Hong 1980) 했는데 환아의 경우 기본적 Limit setting이라 할수 있는 치료시간 지키기와 장난감을 놀이방에 두고 가야하는 것 때문에 치료자와 Struggling을 일으킬 정도로 이를 받아드리는 것이 힘들고 오래 걸렸다. 그 이유는 환아에게 Limit setting이 Rejection으로 받아드려져 치료자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근본적인 불안, 즉 Abandonment fear를 불러 일으켜 환아로 하여금 함구증은 아니지만 Oppositional, 거절적 태도로 반응하게 했기 때문이다. 환아가 열흘만에 미술학원을 그만 둔것도 환아의 '사랑하나 안하나'의 시험 결과라 하겠다.

3단계에서는 이미 시작된 상징적 놀이, 즉 연극적 놀이, 그림 등이 더욱 풍부해지고 그림에 대한 설명등 언어로 표현되는 Fantasy도 풍부해졌다. 또 게임에서 치료자에 대해 매우 경쟁적이면서 병록지에 쓰는등 치료자와 강한 동일화를 하였다. 수영장, 빨개벗은 남자, 여자아이, 눈, 로켓트등 그림의 주제는 주로 외디푸스적인 내용이었고 이 그림을 아버지에게 갖다주었는데 환아가 제 연령에 맞는 외디푸스시기로 발달했다고 볼 수 있겠고 현실에서의 아버지의 긍정적 태도 변화와 갑자기 한방에서 재운 사실등이 외디푸스적 소망을 촉진시킨것 같다. 또한 귀신이 나올까 집으로 가려다 햇님이 뜨고 기분이 좋아지는 그림에서 이제 환아가 격리불안, 유기공포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을 보여 준다.

이후 단계에서 환아는 게임에 져주는 등 자신감이 증가하고 할머니에 대한 감정도 자유롭게 표현하며 Fantasy 대신에 직접 행동과 언어표현이 늘어 권총도 쏘고 형에 대한 이야기도 꾸몄다. 또 타협사과를 하는등 언어로 문제해결을 시도하였다.

21회의 그림은 훌륭한 KFD이다. 초진시 KFD를 그려보라 했을 때 여자아이의 불완전한 얼굴을 그린 것과 대조가 된다(그림 1, 2). 리봉과 치마를 그려넣은 여자다운 모습에서 이제는 남자가 되고 싶은 소망이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위의 치료과정에서 치료적 힘이 되었던 것은 첫째, 비지시적, 지지적 접근방법(Haworth 1964)을 통해 환아를 있는 그대로 받아드려 환아로 하여금 Allen(1974)이 말한 '관계의 경험'을 하게 한 것이고

둘째, 놀이치료를 통해 앞에 설명한 단계를 거쳐 Corrected developmental experience가 가능했다는 점이다(Hong 1980). 다시 말하면 환아의 자발성을

그림 1.

그림 2.

존중한 치료적 태도에 힘입어 환아의 심리적 상처, 그로 인한 Fantasy, wish등이 놀이에 자유롭게 표현되므로써 의식화되고 현실화되어 실패한 발달과제 즉, 자율성의 회복과 원만한 분리개별화가 이루어졌다. 그러므로 정상적 외디푸스 시기를 맞게 되고 추적치료에서 나타나듯 그 갈등의 해소도 가능하였다고 보겠다.

결 어

본 논문에서는 선택적 함구증을 보인 6세 아동의 놀이치료 경험을 소개하였고 이과정을 통해 나타난 정신역동 및 치료과정을 발달학적 관점에서 이해해 보았다. 놀이를 통해 나타난 주된 정신역동은 다음과 같다.

만 2세경 할머니와의 이별을 비롯한 일련의 심리적 타격으로 인해 강한 분리불안 및 유기공포가 형성되어 환아는 자율성을 갖지 못하고 전체적으로 억압되고 특히 긴장을 동반하는 대인관계에서 함구증을 포함한 거절적 태도로 Withdraw한다. 이와 더불어 아들을 원하는 가족분위기와 수동적이고 대우 못받는 어머니로 인해 남자아이가 되고 싶은 강한 소망을 갖게 되므로 정상적 외디푸스 시기의 발달이 저해된다. 치료과정을 요약하면, 비지시적, 지시적 태도를 취한 치료자와의 관계 속에서 환아는 놀이를 통하여 단계적으로 발달과정을 재경험하여 분리불안 및 유기공포를 극복하고 자율성을 회복하였고 정상적 외디푸스 시기의 발달도 이루게 되었다.

References

홍강의 · 조수철(1984) : 놀이의 기능과 의미 정신의학 본 Vol 8, No 6

Allen FH(1934) : Therapeutic work with children. Amer J Orthopsychiat, 4 : 193-202

Bowlby J(1976) : The making and breaking of affectional bonds. Some principles of psychotherapy. Maudsley Lecture at the Royal College of Psychiatry

Carek DJ(1972) : Principles of child Psychotherapy. Springfield Charles C Thomas

Erikson EH(1963) : Childhood and Society. New York, Norton, pp247-274

Freud A(1965) : The concept of developmental lines. IN : Normality and Pathology in childhood, A Freud. New York :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pp62-92

Hayden TL(1980) : The classification of elective mutism J Am Acad child Psychiat 19, 118-133

Haworth M(1964) : Child Psychotherapy, Basic Books, New York, London

Hong KM and Greenberg ML(1980) : A developmental approach to teaching and practicing child psychotherapy. Psychiatry Bulletin, Vol 4, No II

Kovlin I and Fundus T(1981) : Elective mute children ; Psychological development and background factors. J Child Psychol Psychiat Vol 22, No 3, pp219 to 232

ABSTRACT — *Korean J Child & Adol Psychiatr 3 : 138~146, 1992*

THE PROCESS OF PLAYTHERAPY OF A CHILD WITH ELECTIVE MUTISM

Young-Sook Kwak, M.D.

Department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Seoul National Mental Hospital

The study presented the experience of playtherapy of a 6-yr old girl with elective mutism and attempted to understand her psychopathology and formulated her psychodynamic which was expressed though the therapeutic process of playtherapy in the viewpoint of developmental model.

Therapist's attitude was nondirective and supportive. Main theme of her play, fantasy and art was separation anxiety and abandonment fear as the result of continued psychic traumas such as separation from her grandmother and physical abuse by her father and mother etc.

So she couldn't achieve developmental tasks such as autonomy and separation individuation and became generally inhibited and selectively mute.

The process of play therapy was summarized and coceptualized as her successful progress through sequential developmental phases within the therapeutic relation ship. By reexperiencing this developmental process, she could accomplish her autonomy and separation individuation and developed to oedipal stage and successfully resolve oedipal conflict.

KEY WORDS : Elective mutism · Playtherapy.